鮑照의 邊塞詩*

宋 永 程**

<目 次>

Ⅰ. 緖 言
Ⅱ. '邊塞詩' 용어 문제
Ⅲ. 鮑照의 邊塞詩 창작 배경
1. 사회적 배경
2. 개인적 배경
Ⅳ. 鮑照 邊塞詩의 내용
1. 建功의 熱望과 報國의 壯志
2. 功高賞薄과 政令躁急 풍자
3. 征人의 行役과 思婦의 閨怨
4. 邊地生活과 邊塞風光 묘사
Ⅴ. 結 語

Ⅰ. 緖 言

鍾嶸(?~552)은 오언시의 '警策'으로 역대 시인들의 대표적 주제를 열거하면서, 曹植의 '贈弟', 王粲의 '七哀', 劉楨의 '思友', 阮籍의 '詠懷', 左思의 '詠史' 등과 함께 鮑照의 '戍邊'을 제시하였다.[1] 江淹은 이전 시인의 시를 모의한 〈雜體詩〉 30수를 지었는데, 그 중 포조의 시를 본뜬 작품은 제목을 '鮑參軍戎行'이라고 하였다. 齊梁을 대표하는 평자와 시인이 포조 시의 대표적 주제를 '戍邊'과 '戎行'으로 지적하였다는 것은, 이것이 이미 포조 시를 대표할 만한 가치가 있는 주제이고 특색으로 인식되었음을 뜻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A2A01017442)

** 계명대학교 중국어문학과 교수

1) 鍾嶸, ≪詩品·序≫: "陳思贈弟, 仲宣七哀, 公幹思友, 阮籍詠懷, ……鮑照戍邊, 太沖詠史…… 斯皆五言之警策者也."

www.kci.go.kr

한다.

1980년대 말 이후 중국에서의 鮑照(414~466) 詩文에 대한 연구는 열기를 더해가고 있고 邊塞詩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많은 부분이 唐代 변새시에 대한 포조의 영향이나 唐詩에서의 포조 시 수용에 집중되고 있다. 포조의 '戍邊'시의 장르명은 '戎行詩', '從軍之作' 등에서 '邊塞詩'로 바뀌어 왔으나, 변새시를 唐代에만 묶어두려는 견해도 없지 않다. 또 포조 '변새시'의 작품 선정 범주도 廣狹의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변새시'라는 용어를 포조의 '戍邊詩'에 적용하는 문제를 먼저 검토하고, 이어서 동시대의 다른 시인에 비해 작품 수가 많고 그것이 그를 대표하는 주제로 선정될 만큼 가치를 지닐 수 있었던 배경을 고찰한 후, 포조 변새시의 범주를 확정하고 주제를 분석하여 중국변새시사에 있어서의 의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Ⅱ. '邊塞詩' 용어 문제

1980년대 중반 이후 중국 고전문학계에서는 변새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였는데, 그러한 연구 성과물의 하나가 1988년에 간행된 ≪唐代邊塞詩研究論文選粹≫라는 논문집이다. 여기에는 많은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변새시에 대한 개념과 범주의 설정도 매우 다양하다.

그중 가장 배타적인 견해를 제시한 사람의 하나는 譚優學이다. 그는 변새시의 주제 내용은 민족 갈등과 계급 갈등을 다루어야 하고, 창작 지역은 長城 일대여야 하며, 시기는 唐代, 특히 盛唐으로 제한해야 하고, 시인이 직접 체험한 것을 다루어야지 그렇지 않다면 詩題가 〈出塞〉, 〈入塞〉 부류라 하더라도 변새시가 아니라고 하였다.[2)]

2) 譚優學, 〈邊塞詩泛論〉, ≪唐代邊塞詩研究論文選粹≫, 甘肅教育出版社, 1988, 1-3쪽.

www.kci.go.kr

반면 胡大浚은 비교적 개방적인 입장을 피력하였다. 그는 당대 변새시의 전면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보면 안 된다는 전제하에, 從軍 出塞, 변방 국토 保衛, 민족 간의 교류, 塞上 風情, 報國의 壯志 토로, 反戰의 呼聲, 詠史를 통한 託意, 現世의 事件 기록 등을 포함하여, 위로는 정치, 경제, 문화에서부터 아래로는 친구의 우정, 부부의 사랑, 生離의 고통, 死別의 비애를 막론하고, 변새 생활과 유관하기만 하면 모두 변새시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하였다.[3] 다만 시대는 역시 '唐代'로 제한하였다. 邱俊鵬은 당대 변새시가 전대의 '征戍·邊塞詩'를 기초로 발전하였음을 지적하면서 당 이전의 시에 '邊塞詩'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4]

포조의 특정 시를 '邊塞'라는 용어로 평가한 예는 오래전에 있었다. 남송의 朱熹(1130~1200)는, 포조 〈代出自薊北門行〉의 "질풍은 변방 치고 거세게 일어, 모래자갈 저절로 날아오른다. 말 털은 고슴도치인 양 움츠려 들고, 각궁도 얼어붙어 당길 수 없다" 네 구가 분명히 '邊塞之狀'을 말한 것으로 표현도 峻健하다고 하였다.[5] 이것은 포조의 이 부류 시를 '변새시'로 부를 수 있는 역사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후에 劉履(元 말 明 초)와 張玉穀(18C 乾隆 연간)도 이 시를 평하면서 '邊塞'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6]

포조의 시에 장르로서 '邊塞詩'라는 명칭을 사용한 최초의 인물은 淸 말 민국 초의 王闓運(1833~1916)이다. 그는 포조가 "邊塞詩를 짓는 데 역량을 십이분 발휘하였으니 唐의 시인들이 祖述한 바"라고 하였다.[7] 1989년

3) 胡大浚, 〈邊塞詩之涵義與唐代邊塞詩的繁榮〉, 같은 책, 44-45쪽.

4) 邱俊鵬, 〈唐代邊塞詩與傳統征戍詩〉, 같은 책, 59쪽.

5) 朱熹, ≪朱子語類≫,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 1980, 1335쪽: "如'疾風衝塞起, 砂礫自飄揚. 馬毛縮如蝟, 角弓不可張,' 分明說出邊塞之狀, 語又峻健."(錢仲聯, ≪鮑參軍集注≫, 上海古籍出版社, 1980)에는 '衝'이 '冲'으로, '砂'가 '沙'로 되어 있다.)

6) 劉履, ≪選詩補注≫ 권7: "此言漢時邊塞警急."(黃進德 主編, ≪中華大典·文學典·魏晉南北朝文學分典二≫, 鳳凰出版社, 2007, 396쪽 수록); 張玉穀, ≪古詩賞析≫, 上海古籍出版社, 2000, 387쪽: "此擬立功邊塞之作."

7) 王闓運, ≪綃綺樓說詩≫: "作邊塞詩, 用十二分力量, 是唐人所祖."(鍾優民, ≪社會詩人鮑照≫, 文津出版社, 1994, 111쪽에서 재인용)

www.kci.go.kr

에는 葛曉音과 Robert Shanmu Chen(陳山木)이 포조의 시에 '邊塞詩'라는 장르명을 사용하였다.[8] 포조에 한정하지 않고 보면 당 이전의 시에 '邊塞'라는 용어를 적용한 논문은 1988년을 기점으로 하여 1990년대를 거치면서 여러 편 발표되었고, 21세기 들어와서는 기간 논문과 함께 석·박사 학위 논문도 계속하여 발표되고 있다.[9] 그러나 현재 중국에서 출간된 포조 시문 연구 專著 3종 중 2종은 '戍邊詩'(蘇瑞隆, 2007), '戎行詩'(丁福林, 2009)를 사용하였고, 鍾優民(≪社會詩人鮑照≫, 1994)이 '世間衆相, 淋漓盡態'라는 제목으로 '사회시'를 다루면서 첫 절에서 변새류 작품을 다룬 말미에 '鮑照邊塞詩'라는 표현을 사용한 정도이다.

장르의 개념과 범주 등에 대한 논의는 심도 있게 진행할 필요는 있지만, 지나치게 배타적이거나 교조적이어서는 안 된다. 중국의 모든 문학 작품이

8) 葛曉音, ≪八代詩史≫, 陝西人民出版社, 1989, 212쪽: "鮑照的邊塞詩不但具有曹植、阮籍那種奮發踔厲的氣概, 還能將表現理想和反映現實結合起來, 增加了邊塞風物和征人邊愁等內容, 從而確定了邊塞詩的題材範疇."; Robert Shanmu Chen, *A Study of Bao Zhao and His Poetry*, Ph.D.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Canada), 1989, p.181: "Indeed, his …… are all excellent frontier poems."

9) 주요한 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閻采華, 〈梁陳邊塞樂府論〉, ≪文學遺産≫ 1988年 6期; 王文進, 〈邊塞詩形成於南朝說—兼論文學史上南北朝詩風交融之說〉, ≪古典文學≫ 10輯, 1988; 王文進, 〈邊塞詩形成於南朝之原因〉, ≪魏晉南北朝文學思想學術研討會論文集≫, 文史哲出版社, 1991; 王文進, 〈南朝邊塞詩的類型〉, ≪中外文學≫ 20卷 7期, 1991; 王文進, 〈南朝文人的「歷史想像」與「山水關懷」—論「邊塞詩」的「大漢圖騰」與「山水詩」的「欣於所遇」〉, ≪第三屆魏晉南北朝文學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文史哲出版社, 1998; 王文進, 〈南朝與南宋邊塞詩的漢代圖騰〉, ≪魏晉南北朝文學思想學術研討會論文集≫, 第4輯, 文津出版社, 2001; 劉漢初, 〈梁朝邊塞詩小論〉, ≪魏晉南北朝文學論集≫, 文史哲出版社, 1994; 鍾優民, 〈關於鮑照的重新評價〉, ≪魏晉南北朝文學論集≫, 南京大學出版社, 1997; 關永利, 〈鮑照邊塞詩論略〉, ≪樂山師範學院學報≫, 2004; 關永利, 〈唐前邊塞詩研究〉, 陝西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5; 佘正松, 〈中國邊塞詩史論(先秦至隋唐)〉, 四川大學 博士學位論文, 2005; 尉瑞鋒, 〈"兼籠前美, 作範後來"—魏晉南北朝軍旅邊塞詩〉, 內蒙古大學 碩士學位論文, 2005; 張曉明, 〈20世紀邊塞詩研究述評〉, ≪青島大學師範學院學報≫ 2005; 于海峰, 〈南北朝邊塞詩研究〉, 山東大學 碩士學位論文, 2007; 馬寧, 〈淺論鮑照邊塞詩及其蘊含的生命意識〉, ≪內蒙古農業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0年 3期.

www.kci.go.kr

민간과 선구적인 문인들의 노력을 통해 장기간의 배태와 형성을 거쳐 전성기를 맞이한 것처럼, 변새시 역시 秦漢 이후의 민족 간의 전쟁 등 사회적 배경 하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해온 토양이 있었기에, 성당 시기에 최고조의 성행을 구가할 수 있었던 점을 생각해야 한다. 王文進은 당대의 변새시에 漢代의 전고를 대량으로 운용하는 현상[漢代 토템]이 있음을 지적하고, 그것이 南朝의 100수 가까운 변새시에 이미 보이는 현상임을 바탕으로 하여, 完整한 邊塞詩史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조시를 그 기점으로 해야 한다고 하였다.[10] 포조가 秦漢 이후 隋代 사이에 10수 이상의 비교적 많은 '변새시'를 지은 최초의 인물이며, 남조 변새시 중에서도 포조의 작품이 주제나 예술기교 등의 측면에서 성당 변새시에 확정적 역할을 한 측면이 가장 강하다. 이런 점에서도 포조는 변새시의 주요한 개척자일 뿐만 아니라, 그의 이 부류 시를 변새시라고 부르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Ⅲ. 鮑照의 邊塞詩 창작 배경

1. 사회적 배경

변새시의 직접적이고 가장 중요한 창작 배경 또는 동기는 전쟁이다. 성당시기에 변새시가 최고조로 발전한 것이 당 건국 후 영토 확장을 위한 주변국과의 전쟁이 중요한 배경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劉宋 시기에도 北魏와 전란이 끊임이 없었으며, 이것이 포조가 '戍邊'을 주제로 한 시가를 창작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은 분명하다. 포조의 생존 시기인 동진 말 安帝 義熙(405-418) 연간부터 유송 明帝 泰始 2년(466)까지 규모가 비교적 큰 남북 간의 주요 전쟁과 사건만 모두 11차례 있었다. 유송 건국 후의

10) 王文進, 〈南朝與南宋邊塞詩的漢代圖騰〉, ≪魏晉南北朝文學思想學術研討會論文集≫ 第4輯, 文津出版社, 2001, 1쪽.

www.kci.go.kr

것만 치면 武帝 永初 3년(422)의 북위 明元帝(409~423 재위)의 남침에서 文帝 元嘉 29년(452) 북위 太武帝(424~452 재위)의 사망을 틈탄 북벌에 이르기까지 5차의 전쟁이 있었다. 그 중 원가 27년(450) 태무제의 남침이 유송에게 가장 피해가 컸고 위협적이었다. 그해 2월 태무제는 보·기병 10만을 이끌고 남침하여, 12월 유송 수도 建康(지금의 南京市)의 양자강 북안에 위치한 瓜步(지금의 江蘇省 六合縣 동남쪽)에 이르러 곧 도강하겠다고 공언하였다. 그러나 문제의 양자강 봉쇄 작전으로 도강에는 실패하고, 이듬해 정월 과보의 주민들을 약탈하고 가옥을 불태운 뒤, 南兗州, 徐州, 兗州, 豫州, 靑州, 冀州 등 여섯 주에서 약탈, 살인, 방화를 저지르며 철군함으로써 2월에야 전쟁은 끝이 났다.[11] 1년여의 전쟁으로 초토화된 상황을 史書에서는 이렇게 적었다.

> 강한 자는 길바닥에 뒹구는 시체가 되고 약한 자는 포승줄에 묶인 포로가 되었다. 양자강과 淮水 유역에서 淸水와 濟水 유역에 이르기까지 수십만의 戶口 중 환난의 구렁텅이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백에 하나도 되지 않았다. 마을은 텅 비고 황폐해져서 더 이상 닭 울음소리와 개 짖는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었다.[12]

전쟁 직후인 원가 28년(451) 3월, 포조는 始興王 劉濬이 皇命으로 瓜步에 築城을 하러 갈 때 수행하였다. 이때 그는 '戍邊'의 대표작 〈代出自薊北門行〉시를 지었다.[13] '才不如勢'한 현실을 절감하는 내용의 산문 〈瓜步山楬文〉도 이때에 지은 것이고, 폐허가 된 고성을 보고 느낀 감회를 노래한 〈蕪城賦〉도 이듬해 5월 과보에서 廣陵城(揚州)으로 가서 지은 것이다.[14] 전쟁의 체험과 전장에서의 참상의 목도가 포조가 변새시를 짓는 데

11) 이 전쟁의 경과와 결과 등에 대해서는 宋永程, 〈鮑照의 〈代出自薊北門行〉시에 관하여〉, ≪中國語文學≫ 28집, 1996, 129-133쪽 참조.

12) ≪宋書·索虜傳贊≫, 2359쪽: "強者爲轉屍, 弱子爲繫虜, 自江、淮至于淸、濟, 戶口數十萬, 自免湖澤者, 百不一焉. 村井空荒, 無復鳴鷄吠犬."

13) 자세한 것은 宋永程, 앞의 논문 참조.

www.kci.go.kr

가장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사실이다.

유송 시기 寒門 출신의 발탁 역시 간접적인 배경이 된다. 당시 한문 출신이 신분상승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은 '軍功'과 '恩倖'이었다.[15] 軍功으로 성공한 대표적 예가 유송을 건국한 劉裕(363~422)이다. 그는 한문 출신으로 군인이 되어, 대내적으로 孫恩, 桓玄, 劉毅, 司馬休之 등의 반란을 평정하고, 대외적으로 오호십육국의 南燕, 後秦 등을 멸하고 실지를 회복하는 등 무공을 세웠다. 동진 말에는 막대한 권력을 장악하였고 420년 유송을 건국하였다. 유송 왕실은 이러한 태생적 배경으로 인하여, 귀족에 대한 견제를 위해 한문 출신에 대한 배려 정책을 병행하였다. 문제 때에는 여기에 다가 제후 상호간의 견제까지 동원하여 세력 간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왕실의 안녕을 도모하려 하였던 것이다. 물론 한문 출신이 실권을 지닌 지위에 오르게 된 것은, 孝武帝(454~464 재위) 즉위 이후이다. 효무제는 황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문 출신의 근신에 의지하여 국가 기구를 통제하려 하였고, 이를 통해 수많은 '恩倖'이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이다.[16] 포조는 '文學之才'로 仕途에는 이미 진입하였지만 下品에 머물러 있던 터라, 建功立業의 열망과 誓死報國의 壯志를 '戍邊'의 시에 표현함으로써 신분상승을 도모하려 하였던 것이다.

2. 개인적 배경

上述한 사회적 배경은 동시대의 寒士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그럼에도 포조가 변새시 창작에 더 적극적이었던 것은, 그만의 개인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 점으로 포조의 '地望'과 기질을

14) 宋永程, 〈鮑照의 散文 -〈登大雷岸與妹書〉를 중심으로-〉, ≪中國語文學≫ 37집, 2001, 66-73쪽 및 宋永程, 〈鮑照의 〈蕪城賦〉 -창작 시기와 주제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中國語文學≫ 55집, 2010, 36-45쪽 참조.

15) 王鍾陵, ≪中國中古詩歌史≫, 江蘇教育出版社, 1988, 599쪽.

16) 宋永程, 〈鮑照詩 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4, 25-29쪽 참조.

www.kci.go.kr

들 수 있다.

魏晉 이후로 九品中正制가 시행되면서, 士族들은 '地望'을 매우 중시하였다. 포조 역시 몰락 사족 출신으로 자신의 지망에 대한 관심과 자부심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鮑氏는 治水로 유명한 夏禹의 후예이고 춘추 齊의 덕망 있는 대부 鮑叔牙가 시조이기 때문이다.[17] 漢代 이후 鮑宣(30BC~AD3)이 渤海 高城(지금의 河北省 鹽山縣 동남쪽)에서 上黨郡 長子縣(지금의 山西省 長子縣)으로 옮겼고, 포선의 증손 鮑德이 東海郡(治所는 지금의 山東省 郯城縣)으로 이사하였기 때문에, 虞炎의 〈鮑照集序〉는 포조를 '本上黨人'이라고 하였고, ≪宋書≫와 ≪南史≫의 本傳에서는 '東海人'이라고 하였다.[18]

서한 시대에 발해 고성은 幽州 渤海郡에 속하였으며, 상당은 幷州에 속하였다. 이 두 곳은 예로부터 俠客들이 많이 배출된 곳이다. 曹植(192~232) 〈白馬篇〉의 "묻노니 누구네 아들이던가, 유주와 병주의 유협이라오(借問誰家子, 幽幷遊俠兒)", 포조 〈擬古〉 제3수의 "유주와 병주는 騎射를 중시하여, 소년은 말 달리기 좋아한다오(幽幷重騎射, 少年好馳逐)"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동해군은 徐州刺史 관할로 屬縣이 38개나 되는 大郡인데, 예로부터 '東夷之地'로 여겨졌으며 역시 많은 무장과 책사들이 배출되었다. 秦漢 교체기의 劉邦(沛縣 豐邑 즉 지금의 강소성 徐州市 豐縣), 韓信(淮陰 즉 지금의 강소성 淮安市), 蕭何(沛縣 豐邑), 曹參(泗水 沛縣 즉 지금의 강소성 沛縣) 등이 그들이다. 이 때문에 포조는 이런 인물들의 성공 경력에 고무되었고, 곤궁에 처할 때면 그들의 삶을 통하여 自慰하였던 것이다.[19] 포조에게 무공에 대한 열망이 많은 것은 이러한 지망에 대한

17) ≪元和姓纂≫과 ≪通志·氏族略≫에 의하면 춘추시대 姒敬叔이 齊에 벼슬하며 鮑(지금의 山東省 歷城縣)를 封邑으로 받았고, 아들 鮑叔牙는 그것을 氏로 하여 鮑氏 시조가 되었다.

18) 籍貫에 대한 자세한 고증과 논의는 丁福林, ≪鮑照研究≫, 鳳凰出版社, 2009, 3-12쪽 참조.

19) 趙立學, 〈左思、鮑照生活環境及個性特徵的對照研究〉, ≪長江師範學院學報≫ 26卷 6期, 2010, 59쪽.

www.kci.go.kr

자부심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포조는 공명 추구 의식과 신분 상승 욕구가 모두 매우 강렬하였다. ≪南史≫에는, 포조가 臨川王 劉義慶(403~444)을 찾아가 시를 바쳐 자신의 포부를 피력하는 이른바 '貢詩言志' 대목이 있다. 그는 말리는 사람들에게 발끈 화를 내면서 "천 년 세월 동안에 특별히 빼어난 英材요 異士이면서도 묻혀버리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자가 어찌 셀 수 있는 정도이겠소. 대장부가 어찌 지혜와 능력을 깊이 온축해두고 난초[君子]인지 쑥[小人]인지 구별도 되지 않은 채, 종일토록 용렬하게 제비, 참새와 어울리며 놀기만 하겠소."[20]라고 하고는 시를 바쳤고, 文學之士를 애호하던 유의경은 그를 侍郎으로 발탁하였다. '제비, 참새와 어울린다(與燕雀相隨)'는 말에는 ≪史記·陳涉世家≫에 나오는 陳勝의 말 "제비와 참새 같은 하찮은 새가 큰기러기와 고니 같은 큰 새의 뜻을 어찌 알겠는가(燕雀安知鴻鵠之志哉)"의 의미가 담긴 것이니, 포조의 기백과 강렬한 진취적 기상을 읽을 수 있다. 발탁된 그해 가을 江州刺史가 된 임천왕을 수행하여 潯陽(지금의 강서성 九江市)으로 가면서, 여동생에 보낸 편지 〈登大雷岸與妹書〉에서 '오랫동안 가슴 속에 품어온(隱心者久)' '원대한 포부(長圖大念)'를 펼칠 희망을 피력한 것[21]에서도 그것을 읽을 수 있다.

포조의 功業에 대한 열망과 추구는 언제나 名利爵祿, 부귀영화와 연계되어 있다.[22] 〈山行見孤桐〉은 "돌 더미 속 차고 그늘진 땅에 뿌리를 내리고 가파르고 아득한 절벽에 위치하여, 한겨울에 물줄기 세례를 받고 한여름에는 자욱한 안개와 비에 시달리는"[23] 오동나무를 읊은 영물시이다. 포조는 이러한 오동나무에서 자신의 '고단하고 위태로운(單危)' 신세를 느꼈

20) ≪南史·臨川烈武王道規傳附鮑照傳≫, 360쪽: "千載上有英才異士沈沒而不聞者, 安可數哉. 大丈夫豈可遂蘊智能, 使蘭艾不辨, 終日碌碌, 與燕雀相隨乎."

21) 宋永程, 〈鮑照의 散文 -〈登大雷岸與妹書〉를 중심으로-〉, 66-73쪽 참조.

22) 韋亞玲, 〈一樣出身, 別樣選擇—左思、鮑照寒士心態比對〉, ≪文教資料≫ 2008年 3期, 5쪽.

23) 錢仲聯, 앞의 책, 410쪽: "桐生叢石裏, 根孤地寒陰. 上依崩岸勢, 下帶洞阿深. 奔泉冬激射, 霧雨夏霖霪."

www.kci.go.kr

다. 그러면서도, “부디 아름답게 조각이 되어, 임금 당상의 琴이 되기를(幸願見雕斲, 爲君堂上琴)” 바라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신분상승을 바라는 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원가 24년(447) 2월에 황하와 濟水가 동시에 맑아지자 당시 상서로운 조짐이라고 여겼는데,[24] 포조가 〈河清頌〉이라는 장편의 글을 지어 그러한 상서로움이 文帝의 ‘道化의 周流’함에서 기인한 것임을 극찬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한 바람을 이루기 위해 그는 만년에 결국 ‘軍功’을 추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는데, 〈擬古〉 제2수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다. 이 시에서, 그는 젊은 독서에 매진하여 ‘君子論’을 살피고 ‘古人風’을 배워, 言說과 지식은 辯士의 辯舌도 물리치고 文士의 筆鋒도 꺾을 정도였으나, 만년에 ‘投筆從戎’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말하였다.[25]

실제로 포조는 상당 기간 장군 직함의 왕실 제후의 보좌관과 군사참모 직책을 수행하였다. 그가 평생 보필한 제후는 임천왕 유의경, 始興王 劉濬(429~453), 臨海王 劉子頊(456~466) 3인이다. 유의경이 江州刺史가 될 당시 직함 중 하나는 平西將軍으로, 江州와 豫州의 西陽·晉熙·新蔡 3郡의 諸軍事를 都督하고, 衛將軍을 겸하였다. 유준은 포조가 시랑일 당시 中軍將軍, 征北將軍 등의 직함과 함께 南徐州·兗州刺史로 전임하면서 이 지역 諸軍事를 都督하였다. 유자욱은 廣州·交州 2주 및 湘州의 始興·始安·臨賀 3郡의 諸軍事를 都督하고, 征虜將軍, 平越中郎將에 廣州刺史를 겸하였다가, 荊州刺史가 된 뒤인 464년에는 前將軍으로 승진하여 湘州, 雍州, 益州, 梁州, 寧州, 南·北秦州 등 8주의 諸軍事를 都督하였다. 이 8주는 남으로는 雲南省에서 북서로는 四川省, 陝西省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인데 북서쪽로는 북위와 국경을 마주한 변방지역이다. 특히 마지막 관직은 바로

24) ≪宋書·符瑞志≫, 872쪽: “元嘉二十四年二月戊戌, 河、濟俱清.” ≪宋書·臨川烈武王道規傳附鮑照傳≫, 1477-1478쪽: “元嘉中, 河、濟俱清, 當時以爲美瑞, 照爲河清頌, 其序甚工.”

25) 錢仲聯, 앞의 책, 335쪽: “十五諷詩書, 篇翰靡不通. 弱冠參多士, 飛步遊秦宮. 側覩君子論, 預見古人風. 兩說窮舌端, 五車摧筆鋒. 羞當白璧貶, 恥受聊城功. 晚節從世務, 乘障遠和戎. 解佩襲犀渠, 卷袂奉盧弓. 始願力不及, 安知今所終.”

www.kci.go.kr

북서 변새를 관할하는 장군의 '軍事參謀'인 參軍이었으니, 〈擬古〉 제2수는 자신의 실제 상황을 서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그의 仕宦 경력이 변새시 창작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Ⅳ. 鮑照 邊塞詩의 내용

포조의 204수 시 중 군사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읊은 작품은 상당히 많지만, 변새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실은 그다지 많지 않다. 학자들마다 지적하는 작품에 출입이 있고 작품 수 역시 다소 차이가 있다. 몇 편의 논저에서 다룬 작품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26]

작품명 \ 연구자	陵	陳	劉	淸	鍾1	鍾2	關	艷	羅	蘇	丁	馬	杰	선정 차수
代出自薊北門行	√	√	√	√	√	√	√	√	√	√	√	√	√	13
代東武吟	√	√	√	√	√	√	√	√	√	√	√	√	√	13
代苦熱行	√	√		√	√	√	√	√	√	√	√	√	√	12
代陳思王白馬篇	√	√	√	√	√	√	√	√	√	√	√	√		12
擬行路難(14)	√	√	√	√	√	√	√	√	√		√	√	√	12

26) 표의 연구자는 순서대로, 王鍾陵, ≪中國中古詩歌史≫(1988); Robert Shanmu Chen(陳山木), *A Study of Bao Zhao and His Poetry*(1989); 劉漢初, 〈梁朝邊塞詩小論〉(1994); 王志淸, 〈王維邊塞詩: 雄悍逸放的人格塑型—兼論所受鮑照詩的影響〉(1994); 鍾優民, ≪社會詩人鮑照≫(1994); 鍾優民, 〈關於鮑照的重新評價〉(1997); 關永利, 〈鮑照邊塞詩論略〉(2004); 王艷, 〈試論鮑照對邊塞詩發展的貢獻〉(2005); 羅春蘭, 〈"推折默運, 殆摩明遠之壘"—盛唐邊塞詩對鮑照的接受〉(2006); 蘇瑞隆, ≪鮑照詩文硏究≫(2006); 丁福林, ≪鮑照硏究≫(2009); 馬寧, 〈淺論鮑照邊塞詩及其蘊含的生命意識〉(2010); 王衛杰, 〈鮑照邊塞詩歌的思想內容硏究〉(2010)이다. 이 중 작품 수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陳山木(10수, 실제 열거한 것은 11수), 劉漢初(8수), 羅春蘭(14수)뿐이다. 王志淸은 '十幾首'라고 하면서 작품은 6수만 열거하였다. 그 중 〈擬行路難〉은 18수 중 어느 작품인지 밝히지를 않고 주제를 '懷才不遇'라고만 하였다. 여기에 부합하는 것은 제14수이다.

www.kci.go.kr

擬古(3)	√	√	√	√	√	√	√		√	√			√	10
擬行路難(13)	√	√			√	√	√	√	√		√	√		9
建除詩	√	√	√				√		√	√				6
代邊居行		√			√	√						√	√	5
擬行路難(12)	√								√		√		√	4
扶風歌	√				√	√					√			4
王昭君		√	√											2
擬古(2)		√									√			2
擬古(7)											√		√	2
代門有車馬客行					√				√					2
發後渚									√				√	2
從拜陵登京峴									√					1
代陸平原君子有所思行									√					1
代結客少年場行									√					1
擬行路難(8)													√	1
代鳴雁行													√	1
代朗月行													√	1
秋夕													√	1
學劉公幹體(3)			√											1
작품 수	10	11	8	6	10	9	8	6	14	6	10	7	13	

표에서 〈代門有車馬客行〉이하 10수는 변새시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代門有車馬客行〉은 고향에서 찾아온 손님을 만나 옛이야기를 주고받다가 헤어지는 희비의 정을 토로한 작품으로 변새와 관련된 시어를 찾기 어렵다. 〈發後渚〉는, 羅春蘭과 王衛杰은 각각 '변지 戰士의 고독하고 처량한 심경'과 '변지 환경'의 묘사로 보고 변새시로 다루었다.[27] 제3,4구에서 "종군하며 옷과 식량 모자란 채로, 초겨울에 식구들과 이별을 한다(從軍乏衣

27) 羅春蘭, 앞의 논문, 94쪽; 王衛杰, 앞의 논문, 127쪽.

www.kci.go.kr

糧, 方冬與家別)."라고 하여서 '從軍'이라는 표현이 있고 추운 겨울 날씨와 고향을 떠나는 '蕭條'하고 '悽愴'한 심정을 다루고 있으므로, 변새시로 간주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 그러나 錢仲聯의 고증에 의하면, 이 시는 유의경이 강주자사에서 南兗州刺史가 되어 潯陽에서 南兗州의 치소인 揚州로 갈 때, 포조가 그를 수행하면서 〈還都道中〉 3수, 〈上潯陽還都道中〉, 〈還都至三山望石頭城〉, 〈還都口號〉, 〈行京口至竹里〉 등과 함께 지은 작품이다.[28] 이들 중 '還都' 5수는 江州에서 建康으로 돌아오는 여정에서 지은 것이고, 〈發後渚〉는 건강에서 양주로 출발할 때 지은 것이며, 〈行京口至竹里〉는 양주 도착 전 竹里(강소성 句容縣 북쪽 즉 鎭江市 서남쪽)에 도착했을 때 지은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여정에서 지은 다른 작품들을 배제하고 이 작품만 변새시로 다루는 것은 무리가 있다. 〈從拜陵登京峴〉도 羅春蘭은 邊地의 奇寒을 묘사한 것으로 보았는데,[29] 京峴은 京口 丹徒縣 동쪽(鎭江市 동남쪽) 교외에 있는 산인데, 詩題를 보면 이곳의 능묘를 배알하는 행차를 시종하여 경현산에 올라가며 지은 것이다. 비록 '軍井', '士馬', '支劍' 등 종군을 연상시키는 시어가 있기는 하지만, 수도 인근의 능묘 배알을 변새의 종군으로 볼 수는 없다.

〈代陸平原君子有所思行〉은 銅雀臺에 올라가 궁궐의 성대함을 묘사하면서, 당시 임금의 지나친 사치를 지적하여 諷諫한[30] 작품으로, 邊地와 관련이 있는 시어는 찾을 수 없다. 〈代結客少年場行〉은 소년 협객이 술자리에서 칼을 들고 다투다 추격병을 피해 도피한 지 30년 만에 귀향하여 번화한 도읍을 보면서 자신만이 실의에 젖어 있음을 한탄하는 내용으로, '遊俠'과의 연관성은 찾을 수 있지만 변새시로 보기는 어렵다. 또 〈擬行路難〉 제8수, 〈代鳴雁行〉, 〈代朗月行〉, 〈秋夕〉 4수의 경우, 王衛杰은 思婦의 思念과 離苦를 읊은 것으로 보아서 변새시에 넣었는데,[31] 남편의 종군으로

28) 錢仲聯, 앞의 책, 307-308쪽 〈還都道中〉 注(1).

29) 羅春蘭, 앞의 논문, 94쪽.

30) 劉履, ≪選詩補注≫: "蓋爲時君過奢, 不能自謹. 特以此規諷之."(黃進德, 앞의 책, 397쪽 수록)

www.kci.go.kr

인한 사념으로 볼 단정적인 근거가 전혀 없어서 변새시의 한 갈래로서의 규원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學劉公幹體〉 제3수는, 劉漢初는 "북풍이 북방의 눈 휘몰아쳐서, 천리 먼 길 龍山을 넘어서 온다(胡風吹朔雪, 千里度龍山)."는 시구 때문에 변새시로 보았는데,[32] 이 시는 따뜻한 桃李의 계절을 피해 한겨울에 내리는 눈의 '皎潔'함을 빌어 고결한 품성을 찬미한 작품으로[33] 변새와는 무관하다.

나머지 14수는 모두 변새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거나 변지의 생활과 풍광을 다룬 작품들이어서 변새시로 간주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작품들이 다룬 주제는, 建功立業의 열망과 誓死報國의 壯志 토로, 功高賞薄과 政令躁急에 대한 풍자, 從軍出塞로 인한 征人離婦의 行役과 閨怨 서정, 그리고 邊地生活과 邊塞風光의 묘사 등 네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이는 당대 변새시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적인 주제이다.

1. 建功의 熱望과 報國의 壯志

〈代陳思王白馬篇〉, 〈擬古〉 제2, 3수, 〈建除詩〉 등 4수가 이 주제이다. 〈대진사왕백마편〉은, 오랑캐의 침략에 대응하여 白馬에 角弓으로 무장하고 작년 여름부터 다가올 겨울까지 변경을 방어하면서, "다만 그저 변방의 건아들더러, 나만이 영웅임을 알게 하리라(但令塞上兒, 知我獨爲雄)"는, 建功立業 결의를 다지는 작품이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대장부 세운 계책 잘못되어서, 한 품고 변방 戎狄 쫓고 있노라. 서울의 사랑일랑 버리고 떠나, 호마의 공적만을 바랄 수밖에(丈夫設計誤, 懷恨逐邊戎. 棄別中國愛, 邀冀胡馬功)" 없는, 어쩔 수 없다는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만년에 '投筆從戎'할 수밖에 없다는 심정을 비친 〈의고〉 제2수와 주제 면에서 일치한다.

반면 〈의고〉 제3수와 〈건제시〉는 순전히 建功의 열망과 報國의 壯志를

31) 王衛杰, 앞의 논문, 127쪽.
32) 劉漢初, 앞의 논문, 73쪽.
33) 宋永程, 〈鮑照의 〈學劉公幹體〉시〉, ≪中國語文學≫ 59집, 2012, 19-20쪽.

www.kci.go.kr

토로한 작품이다. 〈의고〉 제3수를 보자.

① 유주와 병주에선 騎射를 중시하여	幽幷重騎射
② 소년부터 말 달리기 좋아하였다.	少年好馳逐
③ 요대에는 한 쌍의 동개 찼는데	氈帶佩雙鞬
④ 상아 활이 箭筒에 꽂히어 있다.	象弧插雕服
⑤ 짐승은 살지고 봄풀 짧은데	獸肥春草短
⑥ 말을 달려 평지를 가로지른다.	飛鞚越平陸
⑦ 아침에는 안문의 산을 달리고	朝遊雁門上
⑧ 저녁에는 누번에 돌아와 쉰다.	暮還樓煩宿
⑨ 돌다리엔 화살의 힘 아직 남았고	石梁有餘勁
⑩ 놀란 참새 온전히 성한 눈 없다.	驚雀無全目
⑪ 한족과 오랑캐는 講和 못하여	漢虜方未和
⑫ 변방 성은 번갈아 뺏고 뺏긴다.	邊城屢飜覆
⑬ 나에게 白羽 하나 남겨 준다면	留我一白羽
⑭ 銅虎符와 竹使符를 나눌 것이다.	將以分虎竹

시인 자신의 地望인 幽州와 幷州의 상무적 기질에서 출발하여 제10구까지 騎射를 즐기는 이곳 건아들의 騎馬와 弓術의 비범함을 묘사하였고, 왕명을 받아 군사를 징집하여 滅敵保國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마무리하였다.

〈건제시〉는 建除家가 '建·除·滿·平·定·執·破·危·成·收·開·閉' 12字 즉 '建除十二神'을 12支와 결합하여 길흉을 점치던 '建除法'을 활용한 유희시이다. 포조는 이 12자를 홀수구의 첫 자에 넣는 藏頭體 시로, 西零國과 흉노의 침략을 방어하고 개선하여 '변방 개척(開壤)'의 공으로 '붉은 인끈(朱紱)'을 매고 좌우에 '황금 인장(金章)'을 차는 승상의 반열에 오르는 과정을 노래하였다.[34] 梁代 변새시에 分題 방식이 많은 것은 문인들이 변새를 습관적으로 언급하는 태도와 유관하며 포조 이 시의 영향도 무시할 수

34) 宋永程, 〈鮑照의 雜體詩〉, ≪東西文化≫ 29집, 1997, 40-42쪽 참조.

www.kci.go.kr

없다.[35]

2. 功高賞薄과 政令躁急 풍자

將士의 전공은 높지만 조정의 포상이 미흡함을 풍자한 대표작으로는 흔히 〈代東武吟〉과 〈代苦熱行〉을 든다. 〈대동무음〉은 노병이 직접 청중에게 자신의 전력을 이야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 시의 앞부분은 '젊어서(少壯)' 종군하여 분주히 전장을 누빈 이야기에서 시작하여 '다 늙어(窮老)' 고향으로 돌아온 후 농군으로 살아가는 현재까지의 일을 말하였다. 이어서 과거 젊은 시절을 '깍지 위의 송골매(韝上鷹)'로 비유하고 현재를 '우리 속의 원숭이(檻中猿)'로 비유하면서, 위정자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하는 것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마무리하였다.

㉕ 버려진 방석은 임금 장막 생각하고	棄席思君幄
㉖ 피곤에 지친 말은 임금 수레 그린다오.	疲馬戀君軒
㉗ 바라건대 晉 文公의 은혜 베풀고	願垂晉主惠
㉘ 田子方에 부끄럽지 않으시기를.	不愧田子魂

이 노병은 자신을 '버림받은 방석(棄席)'과 '지친 말(疲馬)'에 빗대었다. ≪韓非子≫에는 晉 文公이 개선하여 황하에 이르러, 낡은 '籩豆'와 '席蓐'을 버리고 手足에 못이 생기고 얼굴이 검게 탄 사람을 대열의 뒤로 보내라는 명령을 내리자, 咎犯이 籩豆는 식기이고 席蓐은 침구이며 수족에 못이 생기고 얼굴이 검게 탄 사람이야말로 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먼저 내린 명령을 거두게 한 故事가 실려 있다.[36] 또 ≪韓詩外傳≫에는 魏나라 田子方이 버림받은 늙은 말을 보고, 젊어서 진력을 다한 것을 늙었다고 버리는 일은 仁者가 할 일이 아니라면서 束帛으로 사온 이야

35) 劉漢初, 앞의 논문, 81쪽.
36) ≪韓非子≫, 『漢文大系』 본; 民族社, 1982, 27-29쪽,

www.kci.go.kr

기가 실려 있다.[37] 시인은 늙은 병사의 입을 통하여 이 두 고사를 빌어 조정의 '賞薄'을 풍자하였다.

〈代苦熱行〉에 대해 ≪樂府解題≫는, 남방의 견디기 힘든 열기와 瘴癘에 시달리며 목숨을 바쳐 종군하여 공을 세우고 개선하였지만 포상이 너무 박함을 풍자한 작품이라고 하였고,[38] 이는 이 작품의 주제에 대한 정설이 되었다. 朱乾은 작시 배경을 남방 林邑 정벌이라는 구체적 實事로 설명하였다.[39]

포조 변새시의 대표작으로 공인받는 〈代出自薊北門行〉은 모든 연구자들이 誓死報國의 壯志를 토로한 작품으로 분류한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렇게 볼 여지가 충분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명장을 誅殺하고 침략에 대한 방비가 허술하여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던 史實[40]에 비춰보면, '당시 政令이 躁急하여 신하 중에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있어 이를 빌어 寓意한 것'이라고 한 吳淇의 견해[41]가 더 합당하다.[42]

---

37) 賴炎元 註譯, ≪韓詩外傳今註今譯≫, 臺灣商務印書館, 1994, 361쪽.

38) ≪樂府詩集≫, 臺灣中華書局, 1970, 1b쪽: "≪樂府解題≫曰: 言南方瘴癘之地, 盡節征伐, 而賞之太薄."

39) 朱乾, ≪樂府正義≫: "宋文帝二十三年遣交州刺史檀和之討林邑. 宗慤自請從軍, 和之遣慤爲前鋒, 遂克林邑. ……還家之日 衣節蕭然. 此刺功高賞薄."(錢仲聯, 앞의 책, 185쪽 수록) 史鐵良은 이를 바탕으로, 포조가 이 전쟁을 '不義之戰'으로 여겨 혐오하였지만 이 전쟁은 '不義之戰'이 아님을 논구하려 하였다.(史鐵良, 〈鮑照 ≪代苦熱行≫主旨辨〉, ≪株洲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 5卷 2期, 2000). 이 주제 역시 풍자의 범주에 속하는데다, 본고의 목적이 전체 변새시의 주제 범주를 다루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뒤로 미룬다.

40) 전쟁 발발 전에 백전노장이며 인품도 훌륭한 명장 檀道濟를 주살하였고, 전쟁이 발발하자 군사에 무지한 백면서생 徐湛之와 江湛, 적의 선전술에 말려 겁을 먹고 패주한 경력이 있는 패장 王玄謨 같은 인물밖에 없어 북위의 공격을 방어하지 못하고 瓜步까지 함락 당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宋永程, 〈鮑照의 〈代出自薊北門行〉시에 관하여〉, 128-133쪽 참조.

41) 吳淇, ≪六朝選詩定論≫: "應是當時政令躁急, 臣下有不任者, 故借此以寓意." (黃進德, 앞의 책, 396쪽 수록)

42) 자세한 논의는 宋永程, 〈鮑照의 〈代出自薊北門行〉시에 관하여〉 참조.

www.kci.go.kr

3. 征人의 行役과 思婦의 閨怨

'戍邊'의 행역과 이로 인한 규원을 읊은 작품을 대표하는 것은 〈擬行路難〉 제12, 13, 14수이다. 제12수는 계절은 어김없이 변화하지만 남편이 변방 수자리(邊戍)로 종군한 지 3년이 지나 소식조차 끊어진 것을 슬퍼하는 思婦의 규원을 노래하였다. 제13수의 제1-10구는 행역으로 3년 세월을 유랑하는 征人이 떠돌다 죽어 '鬼客'이 될까 두려워하는 심정을 그렸고, 후반 16구는 행역 중인 병사가 나그네로부터 '규중에서 과부로 홀로 지내는(閨中嫡居獨宿)' 아내의 소식을 전해 듣는 내용이다. 제14수는 "젊고 건장할 때 종군하여, 흰머리로 떠돌며 돌아오지 못한(少壯從軍去, 白首流離不得還)" 채, "장차 오랑캐 말굽 아래에서 죽어, 아내와 자식은 만나기 어려울(將死胡馬跡, 能見妻子難)" 것 때문에 한숨 쉬는 병사를 읊었다.[43]

〈扶風歌〉, 〈擬古〉 제7수, 〈王昭君〉 역시 이 부류의 작품이다. 〈부풍가〉는 전반부에서 서울을 떠나 전선으로 떠나며 취침이나 휴식 시를 막론하고 언제나 무기를 놓을 수 없는 긴박한 종군 상황을 묘사하고, 후반부는 고향과 친지를 이별하는 비애를, 자욱한 안개 속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아침 해의 묘사 속에 담았다.

⑤ 슬픔 참고 친지를 이별하고서	忍悲別親知
⑥ 눈물을 흘리며 원정 대열 따라간다.	行泣隨征傳
⑦ 찬 안개는 공연스레 배회를 하고	寒煙空徘徊
⑧ 아침 해는 보이는 듯 다시 숨는다.	朝日乍舒卷

〈의고〉 제7수는 이른 추위에 남편에게 보낼 겨울옷을 준비하는 여인이 원정에서 돌아온 征人으로부터 "남편이 농산을 오를 적에, 고향 쪽 바라보며 한숨 쉬었고, 밤새 허리띠가 느슨해지고, 조석으로 안색이 초췌해졌다

43) 자세한 것은 宋永程, 〈鮑照 〈擬行路難〉詩 硏究〉, ≪中國學誌≫ 5집, 1989, 37-40, 48-50쪽 참조.

www.kci.go.kr

(聞君上隴時, 東望久歎息. 宿昔改衣帶, 朝旦異容色)"는 소식을 전해 듣고, "거울은 상자에서 먼지 쌓이고, 거문고엔 거미줄이 생기도록(明鏡塵匣中, 瑤琴生網羅)" 내버려둔 채 독수공방에 시름을 안고 지내는 것을 읊은 규원시이다. 〈王昭君〉[44]은 북방 낯선 곳으로 점점 이동하는 여정에서 느끼는 주인공의 심리를 북방의 낯선 풍경 속에 실어낸 絶句이다.

4. 邊地生活과 邊塞風光 묘사

변지 생활을 읊은 작품은 〈代邊居行〉밖에 없다. 이것은 "소년 시절 낙양을 멀리 떠나서(少年遠京陽)" 만 리 먼 변지로 떠나 외진 산마루의 무너진 초가에서 생활하면서, "차라리 한 마지기 좁은 땅에서, 고상하게 모여서 맑은 술 들며, 즐거운 일 만나면 즐기자(不如一畝中, 高會挹淸漿. 遇樂便作樂)"고 다짐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京陽'의 삶에 대한 미련을 아직도 완전히 떨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그려진 변지 정경은 소슬하고 처량하다.

⑤ 수레와 말 자취도 보이지 않고	不覩車馬迹
⑥ 사슴 노는 풀밭만 보일 뿐이라.	但見麋鹿場
⑦ 낙락장송 어찌 저리 쓸쓸도 한지	長松何落落
⑧ 구릉엔 줄 이룬 것 볼 수도 없다.	丘隴無復行
⑨ 변방에는 키 큰 나무 보이지 않고	邊地無高木
⑩ 소슬한 백양나무 많기도 하다.	蕭蕭多白楊

변새의 이국적 정경을 과장과 상상을 동원하여 '峻健'하고 '奇險'하게 묘사한 것이 포조 변새시의 중요한 특징이 되는데, 〈代出自薊北門行〉과 〈代苦熱行〉이 대표적이다. 이 두 작품은 전쟁 환경의 열악함과 將士의 戰功을 강조하기 위하여, 각각 북방의 혹독한 추위와 남방의 살인적인 열기를

44) 錢仲聯, 앞의 책, 205쪽: "旣事轉蓬遠, 心隨雁路絶. 霜鞞旦夕驚, 邊笳中夜咽."

www.kci.go.kr

과장법을 동원하여 묘사한 점이 두드러진다. 이 부분이 두 작품의 핵심 부분일 뿐만 아니라 邊塞風光 묘사의 특색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따라서 주제가 풍자이지만 邊塞風光 묘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⑬ 질풍은 변방 치고 거세게 일어	疾風沖塞起
⑭ 모래자갈 저절로 날아오른다.	沙礫自飄揚
⑮ 말 털은 고슴도친 양 움츠려들고	馬毛縮如蝟
⑯ 각궁도 얼어붙어 당길 수 없다.	角弓不可張

〈대출자계북문행〉의 변새풍광 묘사 부분으로, 朱熹가 변새의 모습을 말한 것으로 표현도 峻健하다고 하고, 方東樹(1772~1851)가 "변새 전장을 묘사하였는데, 정경이 격앙되고 웅장하며 처량하고 강개하여 사람의 혼을 빼놓는다."[45]고 하였을 정도로, 嚴秋의 변방 혹한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였다. 岑參(715~770)의 〈走馬川行〉의 "윤대에는 구월에 바람이 밤중에 울부짖고, 온 내에 깨진 돌은 크기가 말만한데, 바람 따라 땅 가득히 돌들이 막 뒹군다(輪臺九月風夜吼, 一川碎石大如斗, 隨風滿地石亂走)."와 〈白雪歌〉의 "장군은 각궁조차 당길 수 없고, 도호는 갑옷 차가워 입기 어렵다(將軍角弓不得控, 都護鐵衣冷難着)."는 인용 부분을 본뜬 것이다.

〈대고열행〉은 중국 최초의 남방 변새시로, '功高'를 강조하기 위한 환경의 묘사가 奇險하기 그지없다. 전체 24구 중 앞 16구가 '苦熱' 묘사이다. 제1,2구는 열기의 원천인 赤阪과 火山을 제시하고, 이어지는 제3-8구는 이로부터 생긴 열기를 서술하였으며, 제9-12구는 남방 열대지역에서 볼 수 있는 毒蟲을 과장하여 묘사하였고, 제13-16구는 鄣氣와 惸露의 무서움을 그렸는데, 方回(1227~1305)의 지적처럼 표현이 매우 풍부하다.[46]

45) 方東樹, ≪方東樹評古詩選≫, 聯經出版社, 1975, 193쪽: "寫邊塞戰場, 情景激壯, 蒼凉悲慨, 使人神魂飛越."

46) 方回, ≪文選顔鮑謝詩評≫, 『四庫全書珍本』 4集, 25a쪽: "此詩連以十六句言苦熱, 一句用一事, 富哉言乎."

www.kci.go.kr

① 붉은 비탈 서쪽에서 험하게 뻗고	赤阪橫西阻
② 화산은 남쪽에서 맹위 떨친다.	火山赫南威
③ 신열 나고 머리도 두통 심하며	身熱頭且痛
④ 새들도 추락하여 혼만 돌아온다.	鳥墮魂來歸
⑤ 끓는 샘물 구름 못에 솟아 나오고	湯泉發雲潭
⑥ 타는 연기 돌 절벽서 피어오른다.	焦煙起石圻
⑦ 해와 달도 언제나 흐릴 뿐이고	日月有恒昏
⑧ 비와 이슬 일찍이 마른 적 없다.	雨露未嘗晞
⑨ 붉은 뱀은 길이가 백 자를 넘고	丹蛇踰百尺
⑩ 검은 벌은 굵기가 열 아름 그득.	玄蜂盈十圍
⑪ 물여우는 물에 비친 그림자 쏘고	含沙射流影
⑫ 독충은 지나는 빛 병들게 한다.	吹蠱病行暉
⑬ 습한 장기 한낮에 몸에 스미고	鄣氣晝熏體
⑭ 독초 이슬 밤중에 옷을 적신다.	菵露夜霑衣
⑮ 주린 나비 내려와 먹은 적 없고	飢猿莫下食
⑯ 아침 새도 그 위를 감히 못 난다.	晨禽不敢飛

잠삼의 〈熱海行〉의 "바다 위 뭇 새들 감히 날지 못한다(海上衆鳥不敢飛)"와 "모래와 돌 달구고 변방구름 불태운다(熱砂爍石燃虜雲)", 〈火山雲歌〉의 "나는 새는 천리 길 감히 오지 못한다(飛鳥千里不敢來)"는 이 시 제4-6구를 변용한 것이다.

Ⅴ. 結 語

본고는 포조의 변새시에 대하여, 먼저 '邊塞詩'라는 장르명 사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어서 변새시 창작의 주요한 배경을 살폈으며, 마지막으로 변새시로 거론되는 시 중 일부 작품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범주를 설정하고, 주제를 네 가지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그 결과 포조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唐代 변새시의 개척자라는 결론을 얻었다.

www.kci.go.kr

첫째, 포조는 중국 역사상 본격적으로 변새시를 多作한 최초의 시인으로 변새시파를 창시하였으며, 변새시의 주제와 내용을 규범화하였다. 그리고 거기에 강렬한 애국주의 정신, 진취적 기상과 비판적 리얼리즘을 담았다.

둘째, 漢代의 전고를 多用하는 수사 방식도 당대 변새시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代苦熱行〉이 명백히 당시 남방 정벌을 소재로 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작품들은 모두 한대를 배경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시형 면에서 14수 중 10수가 악부시이며 그 중 〈擬行路難〉 3수는 칠언시인데, 당대 변새시도 주로 악부시이고 칠언가행체가 많은 점에서 포조 시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넷째, 과장과 상상을 통한 奇險하고 峻健한 변새풍광 묘사와 비분강개하고 豪邁奔放한 풍격도 당대 변새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明 陸時雍(생졸년 미상)은 포조가 材力이 높이 빼어나서 당시에 맹렬한 기세를 떨친 점을 평하여, "(옛 蜀나라의) 전설 속 다섯 力士가 험준한 蜀山을 뚫어 길을 내었듯이 인간 세상에 없던 것을 개척한 것"이라고 하였는데,[47] 변새시 발전 과정에서의 포조의 역할에 가장 적합한 평이다.

<參考文獻>

錢仲聯 增補集說校, ≪鮑參軍集注≫, 上海古籍出版社, 1980.
郭茂倩, ≪樂府詩集≫, 臺灣中華書局, 1970.
五臣幷李善注, ≪文選(上)≫, 正文社, 1983.
張玉穀, ≪古詩賞析≫, 上海古籍出版社, 2000.
方東樹, ≪方東樹評古詩選≫, 聯經出版社, 1975.
方 回, ≪文選顔鮑謝詩評≫, 『四庫全書珍本』 4集 영인본.

47) 陸時雍, ≪詩鏡總論≫: "鮑照材力標擧, 凌厲當年, 如五丁鑿山, 開人世之所未有."(丁福保 編訂, ≪續歷代詩話(下)≫, 藝文印書館, 1974, 1687쪽 수록)

www.kci.go.kr

丁福保 編訂, ≪續歷代詩話(下)≫, 藝文印書館, 1974.
종영 지음(이철리 역주), ≪역주 시품≫, 창비, 2007.
黃進德 主編, ≪中華大典·文學典·魏晉南北朝文學分典(二)≫, 鳳凰出版社, 2007.
鍾優民, ≪社會詩人鮑照≫, 文津出版社, 1994.
蘇瑞隆, ≪鮑照詩文研究≫, 中華書局, 2006.
丁福林, ≪鮑照研究≫, 鳳凰出版社, 2009.
王鍾陵, ≪中國中古詩歌史≫, 江蘇教育出版社, 1988.
葛曉音, ≪八代詩史≫, 陝西人民出版社, 1989.
≪宋書≫, 영인본; 景仁文化社, 1976.
≪南史≫, 영인본; 景仁文化社, 1977.
≪韓非子≫, 『漢文大系』 영인본; 民族社, 1982.
賴炎元 註譯, ≪韓詩外傳今註今譯≫, 臺灣商務印書館, 1994.
朱 熹, ≪朱子語類≫,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 1980.
宋永程, 〈鮑照 〈擬行路難〉詩 研究〉, ≪中國學誌≫ 5집, 1989.
宋永程, 〈鮑照詩 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4.
宋永程, 〈鮑照의 雜體詩〉, ≪東西文化≫ 29집, 1997.
宋永程, 〈鮑照의 〈代出自薊北門行〉시에 관하여〉, ≪中國語文學≫ 28집, 1996.
宋永程, 〈鮑照의 散文 -〈登大雷岸與妹書〉를 중심으로-〉, ≪中國語文學≫ 37집, 2001.
宋永程, 〈鮑照의 〈蕪城賦〉 -창작 시기와 주제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中國語文學≫ 55집, 2010.
宋永程, 〈鮑照의 〈學劉公幹體〉시〉, ≪中國語文學≫ 59집, 2012.
譚優學, 〈邊塞詩泛論〉, ≪唐代邊塞詩研究論文選粹≫, 甘肅教育出版社, 1988.
胡大浚, 〈邊塞詩之涵義與唐代邊塞詩的繁榮〉, ≪唐代邊塞詩研究論文選粹≫, 甘肅教育出版社, 1988.
邱俊鵬, 〈唐代邊塞詩與傳統征戍詩〉, ≪唐代邊塞詩研究論文選粹≫, 甘肅教

www.kci.go.kr

育出版社, 1988.
王志清, 〈王維邊塞詩: 雄悍逸放的人格塑型—兼論所受鮑照詩的影響〉, ≪晉陽學刊≫ 1994年 2期.
劉漢初, 〈梁朝邊塞詩小論〉, ≪魏晉南北朝文學論文集≫, 文史哲出版社, 1994.
鍾優民, 〈關於鮑照的重新評價〉, ≪魏晉南北朝文學論文集≫, 南京大學出版社, 1997.
王文進, 〈南朝與南宋邊塞詩的漢代圖騰〉, ≪魏晉南北朝文學思想學術研討會論文集≫ 第4輯, 文津出版社, 2001.
史鐵良, 〈鮑照≪代苦熱行≫主旨辨〉, ≪株洲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 5卷 2期, 2000.
關永利, 〈鮑照邊塞詩論略〉, ≪樂山師範學院學報≫ 19卷 8期, 2004.
王 艷, 〈試論鮑照對邊塞詩發展的貢獻〉, ≪聊城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5年 3期.
羅春蘭, 〈"推折默運, 殆摩明遠之壘"—盛唐邊塞詩對鮑照的接受〉, ≪蘭州學刊≫ 2006年 1期.
韋亞玲, 〈一樣出身, 別樣選擇—左思、鮑照寒士心態比對〉, ≪文教資料≫ 2008年 3期.
馬 寧, 〈淺論鮑照邊塞詩及其蘊含的生命意識〉, ≪內蒙古農業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0年 3期.
王衛杰, 〈鮑照邊塞詩歌的思想內容研究〉, ≪時代文學(下半月)≫, 2010.
趙立學, 〈左思、鮑照生活環境及個性特徵的對照研究〉, ≪長江師範學院學報≫ 26卷 6期, 2010.
Robert Shanmu Chen, *A Study of Bao Zhao and His Poetry*. Ph.D.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Canada), 1989.

www.kci.go.kr

＜中文提要＞

鍾嶸以“鮑照戍邊”目爲五言之警策、文采之鄧林； 朱熹用“分明說出邊塞之狀， 語又峻健”一句來評論鮑照的〈代出自薊北門行〉詩。在中國邊塞詩的發展史上，鮑照確有其“如五丁鑿山，開人世之所未有”之功。本篇重點主要在于三個方面：鮑照“戍邊詩”能否稱爲“邊塞詩”？鮑照創作邊塞詩之背景、契機或因由爲何？ 鮑照邊塞詩之範疇及其主題內容如何？ 就下列幾個方面看， 鮑照不僅是邊塞詩的開創者， 而且他的“戍邊詩”能够稱爲“邊塞詩。其戍邊詩存者共有14首之多，在南朝詩人中，他是首位大量創作此類詩的。其詩歌大多採取五言樂府形式， 也有七言樂府， 這就是盛唐邊塞詩最主要、最典型的詩歌形式。其主題內容可分爲四類：誓死報國的壯志之吐露，對于功高賞薄的現實之諷刺，征人離婦的行役與閨怨之抒懷，邊地生活與邊塞風光之描繪。而且其風格雄奇豪邁，情調慷慨激昂。此亦可謂後來盛唐邊塞詩風的先聲。

Key Words : 鮑照(Bao Zhao), 邊塞詩(frontier poems), 報國의 壯志(great aspiration of defend the country), 賞薄의 풍자(satire on lack of awards), 行役과 閨怨(nostalgia for home, plaintive sadness of boudoir), 邊塞風光의 묘사(description of frontier scenery)

www.kci.go.kr

www.kci.go.kr